

# 국제스포츠 유치 역량 강화 · 네트워크 협력 확대

### 우범기 전주시장, 2032년 올림픽 개최도시 호주 브리즈번 찾아 국제스포츠도시 전략 공유

우범기 전주시장이 오는 2032년 제35회 올림픽 개최도시이자 오세아니아 최고의 국제스포츠도시로 급부상한 브리즈번시와 국제 스포츠 외교에 나섰다.

우범기 시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호주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일대를 방문해 국제스포츠도시로 성장 중인 브리즈번의 인프라 구축 전략과 경기장 운영 시스템을 둘러봤다.

이번 호주 방문 일정은 전주시가 추진 중인 △북합스포르타운 조성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 기반 강화 △해외 스포츠 외교 네트워크 확대에 실질적 방향성을 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행차였다.

우 시장은 먼저 호주 방문 첫날인 지난 6일 브리즈번 시청을 방문해 샌더랜드스 브리즈번시시장과 면담하고,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준비와 시민 참여 과정에 대해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우 시장은 브리즈번 최초의 한국계 시의원인 에밀리 김(Emily Kim) 시의원과 전주-브리즈번간 문화·스



우범기 전주시장이 오는 2032년 제35회 올림픽 개최도시이자 오세아니아 최고의 국제스포츠도시로 급부상한 브리즈번시와 국제 스포츠 외교에 나섰다.

포츠 교류와 청년 정책, 도시 간 네트워크 협력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북합스포르타운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세계적인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브

리즈번의 사우스뱅크 파크랜드, 브리즈번 컨벤션센터 등 문화관광벨트와 선콕스타디움을 둘러봤다.

시는 이 과정에서 현지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 시설들의 경기장 규모와 주변 교통인프라, 의사결정 과정 등 전

반적인 준비 상황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어 우 시장은 둘째 날인 7일에는 골드코스트 아쿠아틱센터와 카라라 다목적 경기장 등 주요 스포츠 경기장 시설을 찾아 골드코스트시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고, 브리즈번으로 돌아와 빅토리아파크를 방문했다.

우 시장이 이틀간 방문한 시설들 중 선콕스타디움은 오는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에서 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빅토리아 파크는 주경기장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도 우 시장은 최성환 재호주 대한체육회장을 전주시 해외지부관으로 위촉하며 호주 지역 교민들과의 스포츠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우범기 시장은 "스포츠 시설은 도시 인프라의 한 부분을 넘어 경제구조를 바꾸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는 점을 현장에서 다시 확인했다"면서 "전주에서도 시민 일상과 도시 문화가 함께 살아 움직이는 지속가능한 복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 나선다

### 일·삶 균형 이루는 근무 환경 조성 기대

전주시는 일과 가정, 그리고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주 4.5일 근무제는 직원들이 주 40시

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금요일 근무시간을 줄여 주말을 포함한 2.5일의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운영 방식은 해당 직원들이 월요일

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추가 근무하는 대신, 금요일 오전 4시간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업무 공백 방지와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위해 운영 인원은 부서별 정원의 25%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정부의

12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 4.5일 근무제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근의 유연한 근무 혁신 흐름을 반영해 직원들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직원 만족도 조사와 업무 효율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총 672가구에 1억51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으며, 보증료 지원신청은 올 연말까지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B)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주 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소득 기준을 충족

해야 한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다.

그러나 법인 임차인·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하는 임차인과 외국인,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의 게시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11월 말까지 공공비축미 2151톤 매입

전주시는 11월 말까지 2025년산 공공비축미 2151톤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올해 매입물량은 지난해 매입량보다 319톤 감소한 2151톤으로, 시는 △건조포대미 1585톤 △산물벼 213톤 △가루쌀 353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올해 전주시역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은 지난해와 달리 시장격리곡 매입물량이 없어 작년의 87% 수준이다.

시는 동별 매입량 및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4개 권역별로 나눠 매입하고, 매입한 미곡은 전주시 정부양곡관리창고(4개소)에 분산해 비축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일반벼

2품종(산동진, 참동진)과 가루쌀 1품종(바로미2)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되며, 농업인에게는 우선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4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후 오는 12월 말 최종정산 금액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단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공공비축미 품종 외 다른 품종의 벼가 출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희성 기자

# "수돗물 이렇게 사용하세요"

### 전주시, 김장철 올바른 수돗물 사용 방법 안내

전주시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를 절이거나 세척 할 때 고무호스를 연결해 수돗물을 사용하면 김장김치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기섭)에 따르면 고무호스 제조 과정에 첨가되는 가소제가 수돗물과 접촉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인체에 해로운 페놀 성분이 생성될 수 있다.

또한 고무호스 자체 냄새는 적지만, 수돗물 속 염소와 반응해 클로로페놀이 생성되면 불쾌한 맛과 냄새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분들은 피부 자극, 복통, 구토와 함께 발한 위험, 신장 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시 상하수도본부가 수돗물 악취 민원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원인이 고무호스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음용이나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수도에는 고무호스 연결을 피할 것 △부득이 고무호스를 사용할 경우 무취·무독성의 수도용 식수전용 고무호스 또는 실리콘 호스 등을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돗물을



더 맛있게 마시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수돗물을 도자기나 유리 용기에 받아 20~30분간 놓아두면 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염소 냄새가 사라지며, 냉장고에 2~3시간 이상 차게 보관한 후 마시면 잔존 산소량 및 청량감이 상승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이기섭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고무호스 사용으로 인한 불쾌한 냄새 유발 방지, 수돗물 맛있게 마시는 방법 등 올바른 사용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수돗물 음용률 향상은 물론, 올바른 먹는물 음용 문화 조성 및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혁신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경희)와 혁신동주민센터(동장 안성자)는 지난 7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강당에서 송영진 시의원, 프로그램 수강생,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 혁신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혁신동 12개프로그램 수강생들이 1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간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발표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개회식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발표회 준비과정을 담은 동영상 상영, 혁신대변더센터 입주대표회의에 대한 감사패 전달, 혁신동주민자치위원회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전달식이 있었다.

이어진 2부 발표회에서는 통기타, 한국전통춤, 라인댄스, 하모니카, 노래교실, 줌바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고 로비에는 캘리그라피 작품전시도 볼 수 있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경희 혁신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발표회는 6년 만에 열린 혁신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라 의미가 더 깊다"며 "혁신대변더센터이파트, 애환회, LX관계자 등 많은 분의 도움으로 이번 발표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자 혁신동장은 "올해 12개 프로그램에 4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였고 이번 발표회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동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한층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햇살담은  
청정원

축! 전주매일 창간



# 간장을 바꿔야!

## 우리가 살아나






간장 부문 브랜드  
고객만족도(BCSI) 1위  
[사단법인]케임협회, [주]소비자침기(2024년)

양조간장: 100% 콩, 100% 쌀, 100% 물로 만든 건강한 간장입니다.  
진간장: 100% 콩, 100% 쌀, 100% 물로 만든 건강한 간장입니다.